

빗물에 쓸려간 소금 보상길 없나요

신안 지도·임자 7곳 생산농가 집중 호우로 72t 유실

재해보험 가입 대상 안되고 피해보상 기준 없어 한숨

4일부터 내린 집중 호우로 72t에 이르는 소금을 쓸려 보낸 신안지역 주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출하를 위해 보관해둔 소금이 없어져 버렸지만 재해 보험 가입 대상도 아닌데다, 피해 보상 기준도 전혀 없어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내린 비로 신안군 지도 2곳, 임자 5곳에서 소금 72t(kg당 350원 기준)으로 피해액 약 2500만원이 유실됐지만 피해 주민들의 경우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됐지만, 재해에 따른 소금 보상 기준은 전혀 없고 재해 보험 가입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소금 생산시설인 결정지와 소금 저장 창고 및 해수 등 시설에 대한 보상 한수(농도가 짙은 바닷물) 등 식품으로서의 '소금' 피해 보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태풍 불라벤으로 신안군 지도, 증도, 임자 등에서 입은

피해 규모만 소금 창고 28동, 해수 371개소, 결정지 133개소 등 17만 6022㎡(피해액 30억9000만원)에 달하지만 공식적인 소금 피해액은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

신안군은 당시 비공식적으로 6000t의 소금이 유실돼 21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을 뿐이다.

정부는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배, 채소 작물 등 일반작물의 경우 ㎡당 220원, 시설채소는 ㎡당 297원~902원까지 피해를 보상하고 있지만 소금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물도 조, 고제 등 폐류부터 해조류, 양식어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금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소금

은 포함되지 않으며 재해보험 가입대상도 아니다.

농·수협에서 운영하는 재해보험은 배,고추, 마늘 등 농작물과 전복·참돔·농어·갈·굴·미역과 뱀장어(하반기) 등만 해당된다.

황시달(56·신안군 지도읍)씨는 "장마 전에 출하하려고 염전 4.3ha에 담아뒀던 염수도 대부분 버리고 소금 창고에 물이 들어와 소금도 많이 녹았다"면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농림수산식품부(현 해양수산부)에 보상과 보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만 받았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전남대, 지역민 대상

무료법률서비스 나서

전남대학교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무료 변호'에 나선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경안 교수) 리걸클리닉 센터는 7월~12월 지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http://lawschool.chonnam.ac.kr/main/main.php>) 및 전화(062-530-2291)로 가능하며, 사전 접수 후에는 내용 검토, 법률상담, 소송지원 여부 결정, 소송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채희중기자 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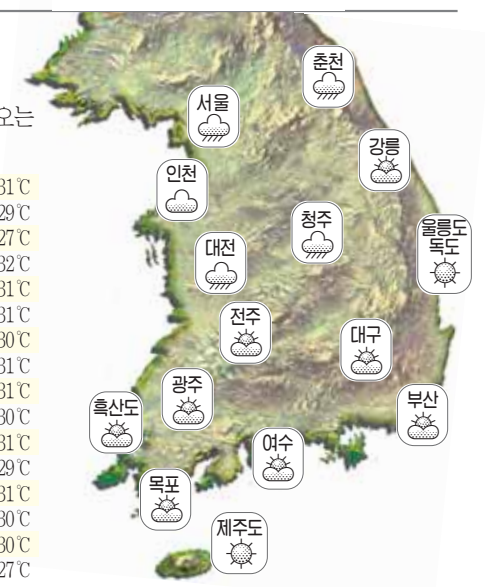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6분
해질 19시 50분
달출몰 06시 13분
달정지 20시 12분

당분간 무더위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 오는 곳 있었다.

광주	구름많음	24/31℃
목포	구름많음	23/29℃
여수	구름많음	23/27℃
나주	구름많음	24/32℃
완도	구름많음	24/31℃
구례	비	24/31℃
강진	구름많음	24/30℃
해남	구름많음	24/31℃
장흥	구름많음	24/31℃
순천	구름많음	23/30℃
영광	구름많음	24/31℃
진도	구름많음	24/29℃
전주	구름많음	24/31℃
군산	구름많음	24/30℃
남원	구름많음	24/30℃
옥산도	구름많음	22/2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위험	매우높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목포 03:02	08:19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14:50	20:1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여수 09:34	03:38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1.5m	22:07	15:37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날씨						
최저/최고	24/33	24/32	23/29	23/28	23/27	23/28

벼락에 맞아서...

공사장서 스마트폰 사용하던 60대 사망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60대 남성이 벼락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돼 낙뢰가 빈번한 장마철 휴대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충북 음성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음성군 맹동면 충북 혁신도시 공사현장에서 김모(64)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동료는 경찰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 밖을 내다보니 김씨가 쓰러져 있었다. 김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동장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왼쪽 발목과 배 주변에는 화상을 입은 흔적

이 발견됐다. 그러나 낙뢰가 어떻게 김씨의 몸속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김씨가 휴대폰을 사용 중이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낙뢰가 휴대폰을 타고 몸속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사고 현장에는 불에 타 깨진 휴대폰 액정과 연기에 그을린 가죽 덮개가 발견됐다. <사진> 휴대폰 통화와 낙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연합뉴스

당시 장흥군 관산을 고마리 장항도에서 박모(46)씨가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낙뢰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다. 박씨의 왼쪽 귀 부위가 크게 그을린데다 별다른 소지품을 갖고 있지 않아 경찰은 휴대폰의 전파나 전자기파 낙뢰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흡수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장마철인 7~8월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낙뢰가 집중되기 때문에 건물 외부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장맛비에 생활쓰레기 산적

8일 전남도 직원들이 목포시 옥암동 황포돛배 선착장에서 장맛비에 떠내려온 1000t 가량의 생활쓰레기와 수초 등을 수거하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조선대 '이사 정족수 늘리기' 제동

교육부 "이사회 정관변경 추진은 월권" 회신

조선대 이사회가 추진하려던 이사 정원 늘리기는 월권이라는 교육부의 판단이 나왔다. 임기가 5개월 가량이 지난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달 이사회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2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 구성원들은 임기 만료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 정원 수를 늘리는 것은 자신들의 연임을 위한 편법이자 폄수라며 최근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조선대 법인이사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에 질의한 이사회회의 긴급처리권 운영에 따른 회신을 받았다.

교육부는 회신을 통해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들이 이사 정수를 변경하기 위해 정관을 바꾸는 것은 이사회회의 긴급처리권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회의에 대해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들의 권한 행사를 제한했다.

교육부는 또 "급박한 사정을 해소

하기 위해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면서 현재 기존 이사회 임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현 이사회 운영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회의 정관변경 작업은 중단된 것은 물론 향후 차기 이사회 구성을 또 다시 미룰 경우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 회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사회회는 오는 15일 예정된 회의에서 정관변경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사회 정원 변경은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

조선대 법인이사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현 이사회회의 긴급처리권 전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어서 후임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는 현 이사회 업무 수행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민주이사추천위원회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에 조속한 후임이사 선임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어서 이사회가 오는 15일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채희중기자 chae@

논 물 빼려다...

해남 70대 노인 급류에 휩쓸려 참변

집중호우로 침수된 논 물꼬를 트려 눈에 갔던 70대 노인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남군 마산면에서 홀로 사는 임모(여·72)씨는 지난 7일 새벽 5시~6시께 논으로 향했다. 비가 전날부터 계속 내리자 논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을 나선 것이다.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해남 누적

강수량은 198mm. 임씨는 눈에 찬 물을 빼내기 위해 옆에 설치돼 있는 수로(폭 60cm·깊이 60cm)에 접근했다. 수로는 며칠 전부터 내린 비로 범람 직전이였다.

임씨는 빗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수로를 막고 있는 나무 관을 치우기로 했다.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임씨는 논

옆에 유모차·신발·지팡이를 놔둔 채 나무 관을 치웠다. 하지만, 나무 관을 빼자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결국 임씨는 물살을 이기지 못해 넘어졌다.

이를 알리 없는 주민들은 임씨가 온종일 보이지 않자 이날 오후 6시경 경찰과 소방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이들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임씨는 이날 오후 7시40분께 자신의 논에서 약 700m 떨어진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종행기자 gilee@kwangju.co.kr /해남=박희정기자 dia@

www.elysia.co.kr

“축복 받은 집” ...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구분	평일	주말, 공휴일
성인	23,000 / 27,000	30,000 / 33,000
초등학생	12,000 / 14,000	15,000 /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 9,000	10,000 /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Complete View 새롭게 태어난 엘리시아만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컨벤션 웨딩홀 (나주) ☎ 061-332-1111

- 150석 규모 웨딩홀
- 100석 규모 연회장
- 50석 규모 연회장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엘리시아 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빅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정식코스리

A코스	40,000원
B코스	50,000원
C코스	60,000원

정식특선

참조기탕	12,000원
생우렁탕	12,000원
대구탕	15,000원
생선초밥	12,000원
특초밥	15,000원
생선구이	15,000원
굴비정식	20,000원
나고야정식	25,000원

주말 가족특선 (1인기준 2인이상)

4인 한상차림	100,000원
---------	----------

(토요일, 공휴일에 한함)